

祝 辭

2024. 1. 26(금) 14: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처음 개최된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금융회사 및 투자기관 관계자분들과 핀테크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오늘 행사의 취지

오늘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디지털 분야 협업과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가 긴요한 상황에서
핀테크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의사결정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핀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도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여력이 있는 금융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B2B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회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인 오늘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는 디지털 혁신을 함께할 파트너를 발굴하고,
투자기관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투자처를 모색하며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확대와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Ⅲ. 핀테크 활성화 정책방향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핀테크 기술 제휴, 해외공동 진출 등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의 場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 ①코리아핀테크워크(8월), ②오픈 네트워킹 데이(반기별), ③핀테크-금융회사 밋업(분기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 위·수탁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합니다.

해외 대사관 및 타 부처, 금융회사들과 연계하여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게 해외 현지 정보 및 해외진출 거점 제공을 확대하고, 현지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협업과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를
지난해 호치민('23.9.6일)에서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해외 현지 홍보기회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킹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협업방안 등 논의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핀산협,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15개 기관 참여)

셋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00억을 조성하여
130개 기업에 3,120억원의 투자를 완료한
1차 핀테크 혁신펀드('20~'23)를 통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올해부터 4년간('24~'27) 추가 조성(5천억 규모)되는
2차 펀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특화 대출·보증지원도
전년도 2,00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2,2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준비된 핀테크 기업들이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심사 진행경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준비 중인 서비스의 규제대상여부 판단 및
사업모델 구체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IV. 맺음말씀

“망설여질 때는 먼 앞을 보라.

2~3년 앞보다 20~30년 앞을 예측하는 게 쉬울 수 있다”

세계적인 IT 창업자이자 벤처투자업계의 대부인
손정의 회장은 본인의 사업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업계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튼튼한 파트너를 만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